

SB SUNBO NEWS

/ since 1986

SUNSHINE 2027 | 친환경 기술로 미래를 여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이메일 • sunbo@sbsunbo.com | 대표전화 • 051.261.3454 | 본사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 사훈 •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th

40년의 위대한 축적
100년을 향한 푸른향해
Since 1986



주요소식

SB선보(주)
창립 40주년 기념식 성료

기념사

40년의 축적,
100년의 도전

회사소식

중견기업을 향한 글로벌 도약,
‘JUMP-UP’ 현판 전달식 개최

회사소식

자율적 안전 문화의 핵심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 전격 실시

주요소식

SB선보(주) 창립 40주년 기념식 성료... 'Sunshine2027' 비전 달성 다짐

대한민국 조선·에너지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당당히 가치를 입증해 온 SB선보(주)가 창립 4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맞이했다. SB선보는 7월 1일,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40년의 불꽃 같은 도전의 역사를 넘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사가 제창, 윤리강령 낭독 순으로 진행되며 임직원들의 책임 의식을 다졌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사하구청장상, 부산상공회의소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상 등 회사와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우수 협력사 사원들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40주년을 기념해 전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창립기념 특별격려금을 전달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최금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선보를 있게 한 전 임직원과 협력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단단하게 축적된 40년의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지속 성장을 가속화하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호남사업장 창립기념식 행사

이어 'Sunshine2027 비전 선언문 제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리더가 된다"는 미션을 선포하고, 지난 40년 동안 험 없이 축적해 온 기술과 신뢰를 원동력 삼아, SB선보는 앞으로도 100년 기업을 향한 푸른 항해를 힘차게 이어갈 것이다.



본사 창립기념식 행사

기념사

40년의 축적, 100년의 도전

사랑하는 선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SB선보 창립 4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지난 40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가족, 발주사, 협력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선보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땀과 헌신이 모여 만든 소중한 결실입니다.

1. 과거 40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

1986년 책상 2개와 전화기 2대로 출발한 선보는 수많은 경제위기와 조선 산업의 불황을 이겨내며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술을 먼저 생각했고,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소중히 여겼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선보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해양플랜트와 친환경 선박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40년은 '도전의 역사'였고, '신뢰의 역사'였으며, '선보가족이 만든 역사'였습니다.

2. 현재,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

지금의 선보는 창사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불공장 신설, 구평공장 확장, 신규 사옥 건립, 본사 사무실 확장, 대선 조선 인수 추진, IPO 준비 등 회사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FSRU, 재기화 시스템, Cargo H/S, Wind Challenger, FGSS, OCCS, 수전해 등 미래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① 원가 경쟁력, ② 품질 경쟁력, ③ 납기 경쟁력, ④ 안전 경쟁력, ⑤ 고객 신뢰가 선보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3. 미래 40년, 세계 최고의 친환경 EPC 기업

앞으로의 40년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AI,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

지, 탄소중립은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될 것이며, 선보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친환경 EPC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조선을 넘어 해양플랜트와 에너지 산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AI와 스마트팩토리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을 갖추겠습니다. 넷째, IPO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자랑스러워하는 100년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4.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회사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만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존경받고,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협력사와 상생하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5.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사랑하는 선보 가족 여러분, 40년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회사'를 넘어 '위대한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인류와 환경에 기여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하겠습니다. 오늘의 땀은 내일의 자부심이 되고, 오늘의 도전은 다음 세대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일
SB선보(주) 회장 최금식

주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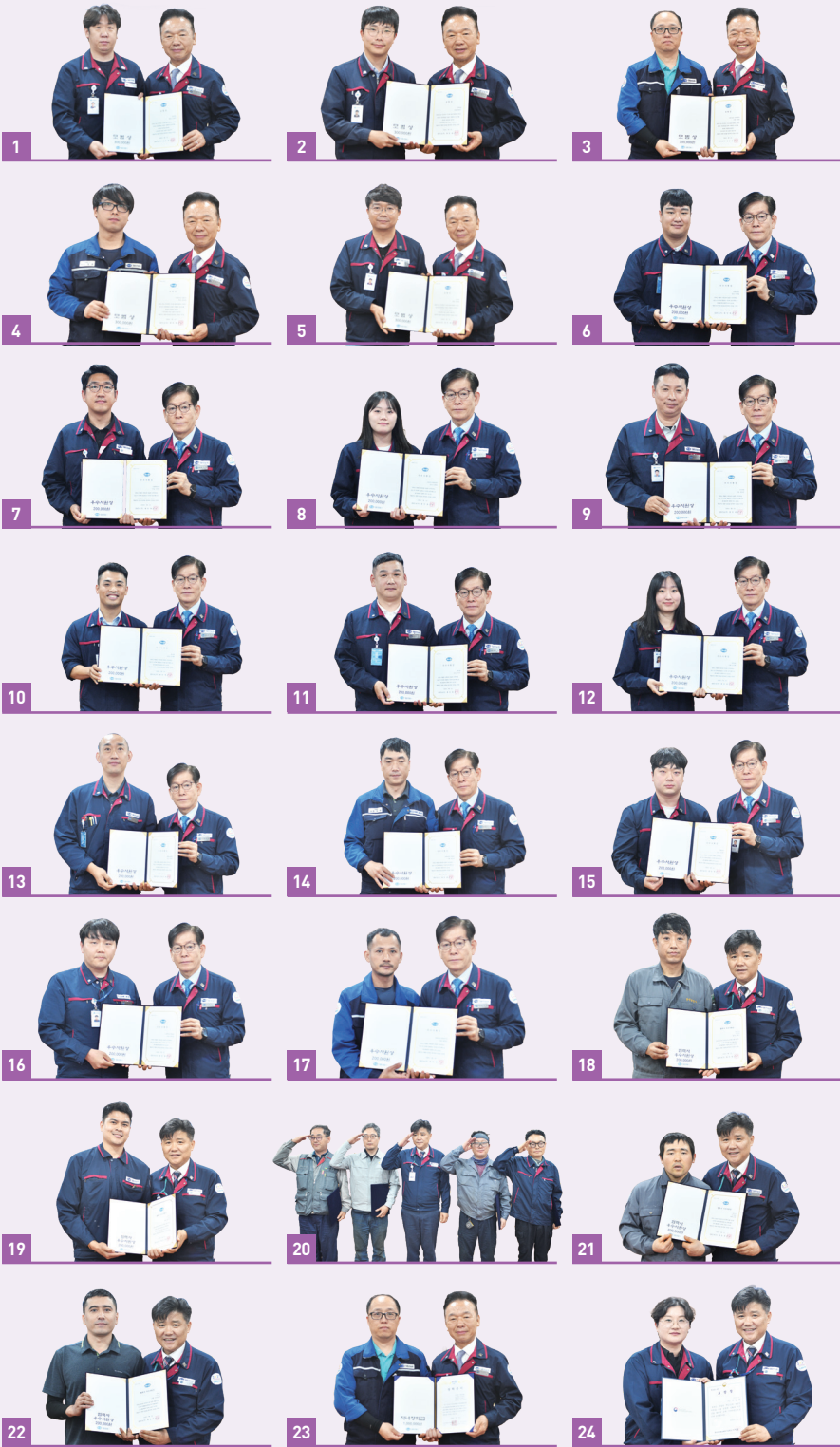
SB선보 창립40주년 기념식 토크아보기

40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더 푸른 항해를 다짐했던 창립40주년 기념식 현장. 자랑스러운 수상자들과 선보Family가 함께한 순간을 생생히 전합니다!



본사 수상자

구분	수상	부서	이름
다대1 다대2 구평	모범상	설계4팀	① 강영한 책임
		구매2팀	② 차동익 선임
		자재지원반	③ 이창호 기원
		조립2반	④ 김영호 주임
		설계5팀	⑤ 천병철 책임
	우수사원상	미래연구팀	⑥ 이병철 책임
		CONTROL팀	⑦ 이동욱 선임
		프로세스개발팀	⑧ 오예린 선임
		시운전팀	⑨ 공성만 선임
		총무팀	⑩ 김수환 선임
		설계1팀	⑪ 고지석 선임
		영업2팀	⑫ 김나래 사원
		플랜트품질팀	⑬ 이동주 선임
		조립2반	⑭ 정상규 기원
		품질2팀	⑮ 오진혁 선임
		직영생산팀(구평)	리스와니 사원
		김해 품질팀	⑯ 서진호 선임
		PCS생산팀	⑰ 왓차뉴 사원
		삼진공업	⑱ 강병기 팀장
	협력사 우수사원상	대신산업	⑲ 레이마크 팀장
		보성 ENG	오상호 팀장
		천조기업	⑳ 성기욱 팀장
		대진유니트	장정훈 사원
		삼사	김학중 소장
		하나ENG	⑳ 손탁 사원
		서진산업	㉒ 아크담 존 사원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자녀학자금상	자재지원반	㉓ 이창호 기원
	중소벤처기업청장상	설계2팀	㉔ 이노경 선임
		전계장개발팀	㉕ 황원우 사원
	한국산업단지공단상	구평생산관리팀	㉖ 이수목 선임
	고용노동청장상	계장반	㉗ 장형구 기원
		UNIT생산팀	㉘ 배승용 책임
	상공회의소상	기획팀	㉙ 이혜원 선임
		ESG소통팀	㉚ 이수지 선임
	사하구청장상	설계8팀	㉛ 김정식 책임
		자재지원반	㉜ 이도희 선임팀장



호남사업장 수상자

구분	수상	부서	이름
호남 사업장	모범상	설계7팀	① 강보철 책임
	우수사원상	대불공장 H.S.E. 기획팀	② 정동현 선임
		영암공장 직영생산팀	③ 김병일 팀장
		대불품질팀	윤세훈 선임
	협력사 우수사원상	다은ENG	④ 김장수 팀장
		지제이아이앤디	⑤ 안중철 조장
		태영산업	⑥ 돈 사원
		우진토탈마린	허남용 사원
	한국산업단지공단상	대불생산관리2팀	⑦ 천희선 선임



회사 소식

중견기업을 향한 글로벌 도약, ‘JUMP-UP’ 현판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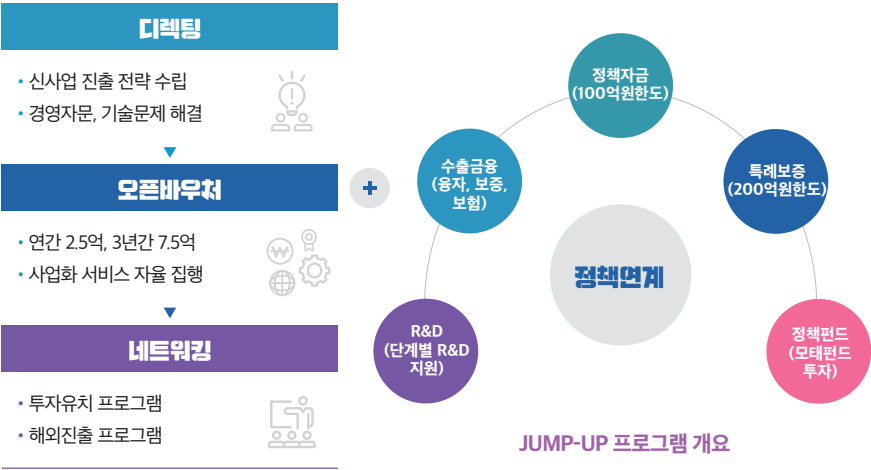
SB선보는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유망 중소기업 집중 지원 사업인 ‘JUMP-UP(점프업) 프로그램’의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SB선보가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공인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중견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JUMP-UP 프로그램’은 높은 성장성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업력 7년 이상의 유망 중소기업을 엄선해 집중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올해 2기 사업에는 전국에서 총 531개의 쟁쟁한 기업들이 신청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성장성·수익성·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SB선보가 최종 100개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프로그램 선정에 따라 SB선보는 향후 3년 동안 중견기업으로 체급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항목에는 ▲미래 신사업 진출 전략 수립부터 ▲기술 사업화 ▲국내외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 프로그램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SB선보는 이미 부산시의 고성장 유망 기업 지원 제도인 ‘앵커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JUMP-UP 프로그램’ 선정은 글로벌

무대를 주도할 중견기업으로 나아가는 완벽한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정부의 탄탄한 지원을 날개 삼아 SB선보가 앞으로 펼쳐나갈 거침없는 신사업 전개와 글로벌 영토 확장에 전 임직원의 뜨거운 기대와 응원이 모이고 있다.



회사 소식

SB선보(주), 부산시·대한적십자사 ‘ESG 실천기업’ 선정… 명예대장 수훈

SB선보가 부산광역시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인증하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개해 온 인도주의 활동과 사회공헌의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대장(포장증 제1138호)’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장은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결정됐다. 송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포장증에는 김홍국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과 박종술 사무총장의 명목이 청인되어 그 가치와 명예를 더했다.

‘ESG 실천기업’ 인증은 SB선보가 대한적십자사와 손을 잡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고 건강한 ESG 경영에 앞장서 온 헌신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상생을 위해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펼쳐온 점이 이번 선정 과정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B선보 김청욱 대표이사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따뜻하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책임 경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번 ESG 실천기업 선정과 명예대장 수훈은 SB선보가 친환경 가치와 기술력을 선도하는 동시에, 이웃과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명실상부한 ‘모범 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자랑스러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회사 소식

열정으로 채운 6주... 인턴십 1기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다

SB선보의 생생한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다져온 대학생 인재들이 6주간의 뜻깊은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SB선보는 6월 5일 본사 대교육장에서 '2026년 대학생 인턴십 1기 성과 공유회 및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금식 회장을 비롯해 서재욱 부사장, 최경호 상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6주 동안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실제 현업 프로세스를 완수한 8명의 대학생 인턴과, 이들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밀착 지도한 멘토 8명 등 총 18명의 주역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성장을 격려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수료증 및 기념품 수여 ▲인턴 성과 발표 ▲인턴 및 멘

토 소감 한마디 ▲우수 인턴 시상 및 수상 소감 ▲격려 말씀 ▲폐회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턴 성과 발표 시간에는 8명의 인턴이 그동안 현업에서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며 실무 역량을 증명했다. 아울러 이들 중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최우수 인턴'과 '우수 인턴'에게는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6주간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SB선보의 현장 곳곳을 누비며 뜨거운 열정으로 실무 역량을 쌓아온 대학생 인턴십 1기 수료생들. SB선보에서의 생생한 경험들이 앞으로 이들이 산업계를 이끌어갈 진정한 전문가이자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훌륭한 자양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회사 소식

설렘으로 다진 새로운 시작... 인턴십 2기 첫발을 내딛다

6월 15일 본사 대교육장이 파릇한 열기로 가득 찼다. SB선보는 대학생 인턴십 2기 주역들의 당찬 첫걸음을 힘차게 응원하며 이들을 맞이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새로 합류한 인턴들이 회사의 기업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펼쳐질 현장 실무 실습에 안전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 실무 지도를 맡은 현업 멘토와 2기 인턴 등 총 13명의 참석자는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이내 '선보패밀리'로서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인턴들의 눈높이에 맞춘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산업 현장의 절대 원칙인 '안전 교육'과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보안 교육'이 짜임새 있게 이어졌다. 이어 인턴들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명찰 수여식'이 진행됐다. 가슴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단 인턴들은 저마다 당찬 포부와 개성 넘치는 다짐을 전하며, 6주간의 여정에 대한 뜨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올여름, SB선보에서 뜨거운 열정을 펼쳐나갈 대학생 인턴십 2기를 소개합니다!



칼럼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 시대에 들어간다...세계 증시, 본격 조정국면 닥치나?

워시 의장의 딜레마와 '1987년 블랙 먼데이'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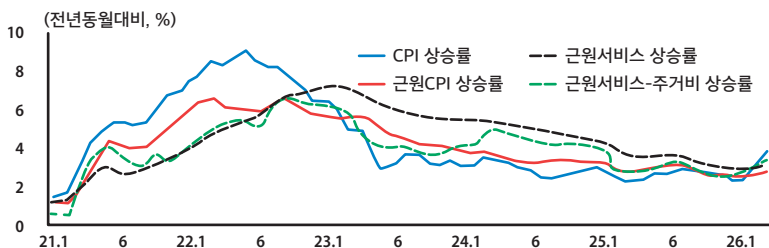
지난달 중순 이후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각국 중앙은행 회의가 집중된 2주간의 슈퍼 워크가 마무리됐다.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케빈 워시 체제를 맞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과연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측이 쉽지 않다. 실업률은 완전고용 밴드 3.5~4.3%의 상단에 걸쳐 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목표치 2%를 두 배 이상 웃돌지만, 1분기 성장률은 잠재 수준에 그쳐 성장-물가-고용 간 정형화된 관계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생명은 선제성(preemptive)에 있다. '금리 인상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올 하반기 FOMC에서 금리를 올리면 1% 이내로 내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파월 전 의장보다 더 빨리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올리지 않으면 '현상 유지의 폭정'에 걸릴 위험이 높다. 통화론자 밀턴 프리드먼은 재량적 판단보다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면 올리고 밀돌면 내리는 '통화 준칙(monetary rule)'을 제시한 바 있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워시 의장이 조기에 금리를 올리면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재현될 수 있다. 최근 경제 여건이 40년 전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첫 FOMC를 주재했던 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그린스펀 전 의장은 경기 과열과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약세로 물가가 목표치를 크게 웃돌자 첫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연착륙을 통한 거품 방지라는 Fed의 전통을 무시한 성급한 처사였고, 직후인 10월 19일 S&P 지수는 하루 20% 넘게 폭락했다. <그림 1>

<그림 1> 케빈 워시 취임 전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분사 평균 물가' 도입과 기준금리의 행방

첫 주재 회의에서 워시 의장은 절묘한 선택을 했다.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점도표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과 달리 완화적 기조를 택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일단 피했다.

관건은 예고된 인상이 언제 단행되느냐인데, 이를 읽으려면 파월 전 의장과 크게 다른 워시의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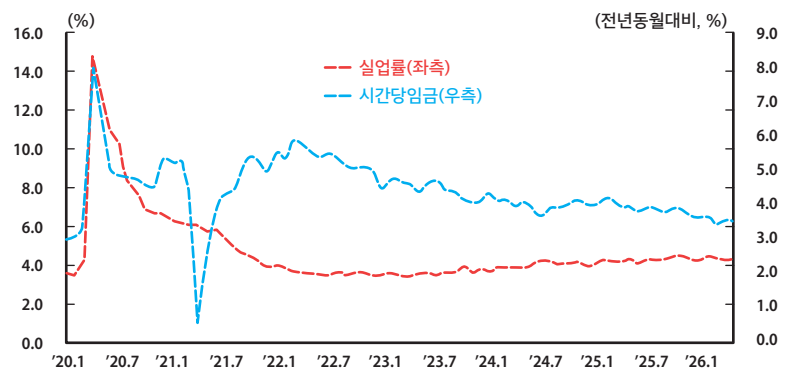
워시 의장은 양대 책무 중 고용 창출을 떼어내 물가안정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첨단기술 시대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 필립스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근거에서다. 또 금리 잣대를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에서 분사 평균(trimmed mean) 물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표로 재산출하면 5월 근원 PCE 상승률 2.9%가 2.3%로 낮아져, 목표치 2%의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온다.

워시 의장의 시각은 최근처럼 주가 고평가 논쟁이 있을 때 더욱 바람직하다. 거품 우려가 나올 수준에서는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연착륙시켜야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회의에서 지혜를 보인 워시 의장이 앞으로도 그 판단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글로벌 증시의 앞날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그림 2> 미국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추이



선보 챗봇

영하 162°C의 LNG를 다룬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선보는 영하 162°C의 LNG를 다룹니다." 회사 소개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영하 162°C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영하 162°C, 얼마나 차가울까요?

물은 0°C에서 얼고, 드라이아이스는 약 -79°C입니다. LNG는 이보다 훨씬 낮은 영하 162°C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일반 금속은 이런 극저온에서 수축하거나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LNG를 안전하게 다루려면 일반적인 배관이나 탱크로는 부족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뜨거운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LNG도 영하 162°C를 유지하며 저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LNG를 적절한 압력으로 보내고, 기화시켜 엔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극저온을 유지하는 기술과 유체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보는 무엇을 할까요?

선보는 탱크나 배관 하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LNG를 저장하고, 압력을 조절하고, 기화시켜 엔진까지 안전하게 공급하는 FGSS(Fuel Gas Supply System)를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수많은 장비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정확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극저온 유체 제어 기술과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보의 경쟁력입니다!

이 기술은 LNG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선보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시스템은 물론,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보챗봇 한 줄 정리

영하 162°C를 다룬다는 것은 차가운 액체를 저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극저온의 유체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기술입니다.

선보Family

웃음으로 충전한 점심시간, 6월 한마음대회 성료

SB선보는 6월 24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임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6월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본사 옥상 스마트라운지와 호남사업장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선보Family가 참여해 유쾌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달 한마음대회의 미션 종목은 높은 집중력과 섬세한 손재주를 요구하는 ‘젓가락으로 탁구공 옮기기’였다. 제한 시간 내에 젓가락만을 이용해 탁구공을 가장 빠른 속도로 다른 접시에 옮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경기가 시작되자 마음과 달리 매끄러운 탁구공이 젓가락 끝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통통 튀어 오를 때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의 아쉬움 섞인 탄식과 유쾌한 응원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에 참가자들은 숨을 죽인 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경기에 몰입했고, 지켜보는 임직원들 또한 손에 땀을 쥐며 동료들의 활약을 응원했다.

작은 탁구공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서로 소통했던 이번 대회를 통해 임직원들은 기분 좋은 리프레시의 시간을 가졌다.

본사



호남사업장



상식

젓가락 게임이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게임이나 이벤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심리학에서는 함께 웃고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이 서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며,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직급을 넘어 모두가 동등하게 소통하는 시간

특히 이번 한마음대회에서 진행된 ‘젓가락으로 탁구공 옮기기’와 같은 간단한 게임은 업무 능력이나 직급,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평소 업무적인 접점이 많지 않아 서먹했던 타 부서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트고, 서로를 열렬히 응원하며 웃음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 내 끈끈한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직무’를 넘어 ‘사람’을 이해하는 협업의 밑거름

또한, 이러한 사내 활동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차가운 ‘직무’의 대상이 아닌 따뜻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비록 점심시간을 활용한 짧은 순간이었지만 함께 미션에 도전하고, 작은 실수에 웃음을 터뜨리며, 성공의 순간을 함께 축하했던 경험은 향후 실제 협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 신뢰와 유대감을 쌓는 단단한 밑거름이 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조직문화 활성화와 리프레시를 위해 소규모 사내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훌륭한 업무 성과는 치열한 회의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성과를 이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굳건한 신뢰는 일상 속 작은 소통의 순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하! 토막 상식!

임직원들이 함께 웃으며 보낸 10분의
컴팩트한 시간이, 함께 일하는 100일 동안의
사내 분위기를 바꾸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

선보봉사단

이웃을 향한 발걸음, 선보가 나눈 행복의 온정

SB선보의 나눔 문화를 앞장서 실천하는 '선보봉사단'이 지역사회를 위한 온정의 손길을 연이어 펼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기꺼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웃들과 온기를 나눈 따뜻한 현장을 살펴본다.

6월9일



6월9일 |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진 '사랑의 배식 봉사'

물운대복지관을 찾은 선보봉사단원 8명은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의 메뉴는 어르신들이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든든한 한 그릇 요리인 '비빔밥'이었다. 단원들은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대접하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았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설거지와 식당 내부 정리 정돈까지 완벽히 마무리하며 맡은 바 임무를 다했다.

한편, 봉사를 마친 단원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커피 쿠폰 추첨 이벤트에서는 박성우 선임이 당첨되는 소중한 즐거움을 더하기도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처음 동참한 양수원 선임은 "저의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동네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무척 뿌듯했습니다. 오히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기운을 가득 받고 복귀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라며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6월27일



6월27일 | 땀방울로 해충을 막아낸 '다대물운대아파트 방역 봉사'

이어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다대물운대영구임대아파트 31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름철 맞이 방역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활동에는 선보봉사단원 7명이 참석해 소중한 땀방울을 흘렸다.

단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해충에 취약한 하수구 및 배수구, 화장실, 싱크대 하부 등을 구석구석 살폈다. 이른 더위 속에서 단원들은 이마에 땀이 맺히는 줄도 모른 채, 무릎 꿇고 몸을 숙여가며 정성껏 약재를 살포하고 방재용 먹이통을 부착했다.

어느덧 1년이 넘게 이어온 방역 활동 덕분에 예전보다 환경이 한결 나아졌지만, 아직도 일부 세대는 해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활동 중에는 마침 도시락 배달 봉사자들과 동선이 겹쳐 서로 가볍게 격려 인사를 나누는 이웃 간의 온정을 느끼기도 했다.

선보 플리

일상에 건네는 멜로디, 선보Family 최애 플리 공유합니다!

지치고 힘든 날,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는 인생 곡은 무엇인가요? 가만히 듣고 싶을 때, 혹은 격렬하게 운동하고 싶을 때마다 손이 가는 선보인들의 비밀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합니다!

▶ 이 곡을 최애 플리로 뽑은 이유는? ▶ 선보가족에게 한마디

소확행 임창정

김재현 사원 설계2팀

- ▶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노래를 들으며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상한 마력이 있는 노래입니다. 주옥같은 가사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피식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 ▶ 힘든 날 산책 나가실 때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피식 웃음 보장합니다



REDRED 코르티스(CORTIS)

이화진 사원 설계운영팀

- ▶ 딸들이 보던 유튜브에서 우연히 알게 된 노래입니다. 헬스장 런닝머신 위에서 이 노래 들면 신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요즘 운동할 때 빠질 수 없는 필수 곡이 됐어요!
- ▶ 운동하기 싫은 날, 이 노래 먼저 틀어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HAPPY DAY6

김병철 사원 설계1팀

- ▶ 힘들 때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인데, 이 곡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사가 마음에 큰 위로와 에너지를 줘서 자주 찾게 되는 노래입니다.
- ▶ 힘들 때일수록 HAPPY! 이 노래와 함께라면 조금 더 가볍게 털어낼 수 있어요



푸념 최유리

황정현 사원 영암품질팀

- ▶ 어른이 되며 겪는 길 잃은 감정과 공허함으로 시작해, 점점 희망과 위로로 채워지는 노래입니다.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됩니다.
- ▶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특강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 ‘기본’의 디테일과 ‘주도적’ 책임감에서 답을 찾다

바야흐로 AI가 일을 대신하고 모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도래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테크닉이 아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정의하는 ‘주도성’과 업무의 작은 디테일까지 챙기는 ‘책임감’이야말로 이 시대 일하는 사람의 진짜 가치이자 경쟁력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6월 10일 본사 대교육장에서 선보Family의 마인드를 깨우는 아침특강이 열렸다.

‘SB선보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기본을 놓치지 않는 디테일과 끝까지 책임지는 실행력이 진짜 일잘러를 만드는 키포인트임을 강조했다.

업무 목적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맡은 일을 완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고민하는 작은 차이가 업무의 완성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더불어, 리더십은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만의 역할이 아님을 짚었다.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이끌고 결과에 책임지는 ‘워커의 책임 리더십’은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세다.

AI가 일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나의 일에 책임을 더하는 사람만이 대체 불가능한 진짜 ‘일잘러’가 될 수 있다. 이번 특강을 계기 삼아 주도적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선보Family의 멋진 내일을 기대해 본다.



상식 AI 시대, 일잘러는 좋은 질문에서 좋은 결과를 만든다

AI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보다 답변이 별로인데?”라고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I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AI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단순히 “보고서 작성해줘”라고 요청하면 AI는 보고의 목적도, 읽는 사람도, 원하는 분량과 형식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이고 두루뭉술한 결과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더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시]

✕ 보고서 작성해줘.

○ 경영진 보고용으로 2025년 주요 경영실적을 정리해줘.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성과가 돋보일 수 있도록 A4 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줘. 문장은 전문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해줘.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왜 이 업무를 하는지’, ‘누가 이 결과물을 볼 것인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AI에게 질문하는 과정은 곧 업무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업무를 대신 판단해 주는 존재라기보다,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

을 때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업무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일잘러’에게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AI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의 본질을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질문의 디테일이 달라지면, AI의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디테일은 결국 ‘일의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질문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WHY 왜 필요한가?	WHO 누가 보는가?	WHAT 무엇이 중요한가?	HOW 어떤 형태를 원하는가?
업무의 목적과 활용처를 알려주세요.	경영진, 고객, 동료 등 결과물을 확인할 대상을 알려주세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핵심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보고서, 이메일, 표, 요약문 등 원하는 형식과 분량, 문체를 알려주세요.

회사 소식

자율적 안전 문화의 핵심,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 전격 실시

SB선보 부산사업장이 안전한 일터 조성과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부산사업장은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 스스로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필수 안전보건관리 활동이자,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단계별 전문화 교육 완료... 현장 안전 전문가 양성

HSE팀은 이번 위험성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현장 작동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에 각 부서 위험성평가 담당자 18명과 관리감독자 22명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4회차부터 9회차에 걸친 단계별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현장 안전의 핵심 주체이자 법적 의무를 지닌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는 교육의 깊이를 한층 강화했다. 생산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층 이론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실습을 병행하였다.

근로자와 함께 만드는 유해·위험요인 Zero 일터

체계적인 교육을 마친 부서별 담당자와 관리감독자들은 약 한 달간의 평가 기간 동안 부서원 및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위험성평가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회의를 주도하고, 현장 순회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위험요인 제언제도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작은 위험 요소까지 꼼꼼히 발굴하고 진단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대책은 즉각 현장에 반영되어 이행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전사적인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

위험성평가 실시 알림

당사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 일 시 : 2026. 06. 22. ~ 2026. 07. 19. ✓
• 대 상 : 에스비선보㈜
• 실시처 : 에스비선보㈜ 근무 임직원

▶ 참고사항
• 관리직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중심으로 당해부서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평가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따라 담당 공정의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에스비선보(주) 대표자 : 김 정 욱

교육

리더 맞춤형 '생성형 AI 원데이 교육' 진행

AI 중심의 조직 체질 개선 주도

최근 생성형 AI 도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할 리더가 AI의 메커니즘을 모르면 조직의 생산성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보안 리스크에 직면하기 쉽다. 즉, AI 시대의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리더 스스로가 AI를 '전략적 의사결정의 파트너'로 활용할 줄 아는 역량에서 결정된다.

SB선보가 최근 임원 및 팀장 등을 대상으로 '리더를 위한 생성형 AI 원데이 교육'을 전격 실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6월 30일, 총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에너지·제조 산업 환경 속에서 리더들이 과거의 '경험 기반 의사결정'에서 탈피해 '데이터와 AI 기반의 스마트한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리더가 이끄는 AI Native

이번 교육은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 ▲구조화된 프롬프트 기법 및 리서치 가공 ▲보



안 걱정 없는 엑셀 데이터 업무 자동화 ▲씽킹 파트너(Thinking Partner) 및 AI 비서 구축 ▲뉴스 브리핑 및 메일 발송 자동화 등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 업무에 활용할 생성형 AI 포인트 아이디어이션' 워크숍이 진행됐다. 리더들은 각 부서별 업무 환경에 AX(인공지능 전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룹별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교육은 SB선보의 경영진과 리더들이 AI를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 수준을 넘어,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AI 기술을 내재화하고 업무 혁신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SB선보가 미래 제조·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스마트한 조직으로 빠르게 체질 개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보봉사단 SB선보 부산사업장, 이동형 안전관리 ‘안전패트롤카’ 운영

SB선보 부산사업장이 한층 체계적이고 신속한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패트롤카(Safety Patrol Car)’ 운영을 시작했다.

안전패트롤카는 사업장 내 주요 작업구역을 상시 순회하며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이동형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현장 내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차량 내에 각종 구급장비와 비상대응용품을 상시 비치해, 응급환자 발생이나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효과적인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완비했다.

SB선보는 앞으로도 안전패트롤카를 활용해 현장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식 “내 안의 잠재 에너지는?!”…SB선보 자체 제작 ‘에너지 유형 테스트’

최근 MBTI를 비롯한 다양한 성향 테스트가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SB선보가 임직원들과의 유쾌한 소통을 위해 자체 제작한 ‘나의 에너지 유형 테스트’를 공개했다. 이번 테스트는 단순한 성격 진단을 넘어, 개개인의 업무 스타일과 라이프 성향을 분석한 뒤 이를 ‘친환경 미래 에너지와 연료’에 매칭하도록 설계되어 SB선보만의 독창적인 기업 특성을 위트 있게 반영했다.

나의 에너지 유형 테스트는 동료들과 결과를 공유하며 서로의 업무 성향을 한층 더 깊고 유쾌하게 이해하는 기분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유형 테스트

무리하지 않아도
꾸준히 앞으로 가는 사람

현실형 전환러

LNG
현실형 전환러

신중함, 안정감, 실용성

당신은 한 번에 확 바꾸기보다, 지금 가능한 방식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크게 티를 내지는 않지만 말은 일은 안정적으로 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한 신뢰감을 줘요.

새로운 변화 앞에서는 조금 신중해질 때도 있지만, 그만큼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타입입니다.

연료와 연결하면:

LNG는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연료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한 번에 확 바꾸기보다 안정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타입과 닮았어요.

남들 말려도
꽃하면 가는 사람

미래 직진러

암모니아
미래 직진러

목표지향, 결단력, 도전정신

당신은 목표가 생기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어렵고 낯선 길이어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있어요.

기준이 뚜렷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필요한 변화라면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타입입니다. 다만 앞을 너무 멀리 보다 보면, 주변이 당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연료와 연결하면:

암모니아는 미래 선박 연료로 주목받지만, 안전한 관리와 기술이 중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쉽지 않아도 큰 목표를 향해 단단하게 나아가는 타입과 닮았어요.

어디 뒤도 알아서
잘 맞추는 사람

유연한 밸런서

메탄올
현실 맞춤형 조율러

유연함, 균형감, 실용력

당신은 상황을 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지금 가능한 방법을 찾고, 사람들과의 분위기도 부드럽게 맞춰가요.

너무 튀지는 않지만 어디에 있어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복잡한 상황도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잘 맞춰주다 보면, 가끔 내 의견이 뒤로 밀릴 때도 있어요.

연료와 연결하면:

메탄올은 비교적 다루기 쉬운 액체 연료로,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이야기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균형을 잡는 타입과 닮았어요.

아직 없는 가능성까지
먼저 보는 사람

순도 100 개척자

수소
순도 100 개척자

창의력, 혁신성, 가능성

당신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너머의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그게 되겠어?'라고 할 때도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디어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해요. 순수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타입이라, 처음엔 엉뚱해 보여도 듣다 보면 묘하게 설득되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크게 보다 보니 현실적인 조건을 조금 늦게 볼 때도 있어요.

연료와 연결하면:

수소는 미래 에너지로 기대되는 연료예요. 다만 저장과 공급 기술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능성까지 먼저 보고 새로운 길을 상상하는 타입과 닮았어요.

EVENT 결과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퀴즈!

<SUNBO NEWS> 6월호 ‘호국보훈의 달 맞이,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퀴즈!’ 이벤트에 78명의 선보Family가 응모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등 치킨교환권 : 플랜트품질팀 이건호 사원

2등 햄버거세트 교환권 : 전계장개발팀 강신우 선임, 설계3팀 이경진 책임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기획팀 이해원 선임, 설계1팀 김동훈 선임, 설계운영팀 이화진 사원,
플랜트품질팀 김천기 책임, 영업설계팀 제경혜 사원



추첨 진행

ESG소통팀
김우주, 김채안 인턴

EVENT

선보 40년 타임머신! 시간의 퍼즐을 맞춰라!

객관식

**HINT** | ① 2005년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탑 수상식 ④ 창립25주년 기념식

답: () - () - () - ③

부서 :

성명 :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다대1공장	심성섭 기원	A/S PART	2001.07.02(25주년)
	이동민 선임	재무인사팀	2021.07.19(5주년)
다대2공장	최예원 기원	출하준비반	2006.07.01(20주년)
김해공장	김성만 주임	PCS생산팀	2021.07.01(5주년)
	김일권 선임	PCS생산팀	2021.07.01(5주년)
	김형규 사원	PCS생산팀	2021.07.01(5주년)
	나용태 팀장	PCS생산팀	2021.07.01(5주년)
	박진순 사원	PCS생산팀	2021.07.01(5주년)
	윤호영 선임	김해 품질팀	2021.07.01(5주년)
	이기훈 책임	PCS생산팀	2021.07.01(5주년)
	최영철 사원	PCS생산팀	2021.07.01(5주년)
	손우효 사원	호인ENG	2021.07.01(5주년)
	손 탁 사원	하나ENG	2021.07.01(5주년)
	이명철 사원	하나ENG	2021.07.01(5주년)
	이의수 소장	하나ENG	2021.07.01(5주년)
	장재선 소장	아영산업	2021.07.01(5주년)
	정인길 사원	하나ENG	2021.07.01(5주년)
	최명철 사원	하나ENG	2021.07.01(5주년)
	영암공장	신용섭 상무	호남설계담당
경충수 고문		호남사업장	2021.07.12(5주년)

- **총괄 편집** 이세영 수석, 이수지 선임, 김우주 인턴사원, 김채안 인턴사원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총무, 행사, HSE 김수환 선임, 배상준 선임
- 제작 미디어줌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다대1공장 강승우(7.1) 김희규(7.10) 홍봉걸(7.24)
김재원(7.2) 전성민(7.10) 최금식(7.27)
장호신(7.2) 강병기(7.13) 최재훈(7.28)
이노경(7.4) 박영호(7.15) 이상민(7.29)
최우호(7.6) 유무성(7.17) 장철민(7.29)
정제현(7.7) 삼술(7.20) 한지혜(7.29)
정종학(7.7) 황원우(7.20) 유시호(7.30)
한승목(7.7) 이호종(7.21) 지문자이(7.30)
고지석(7.8) 정대환(7.21)
전재홍(7.9) 반민(7.23)

다대2공장 안재원(7.3) 홍 타이(7.10) 정일수(7.30)
김형원(7.4) 넬슨(7.15)
최철환(7.6) 바 호이(7.22)

구평공장 톨루타이(7.10) 표종원(7.20) 페 닌(7.26)
엄태길(7.17) 응우옌더광(7.23)

대불공장 사미라(7.1) 임동현(7.13) 김상진(7.25)
김흥이(7.6) 박종현(7.16) 김성만(7.28)
이하나(7.8) 송봉선(7.18) 김창문(7.28)
허승환(7.8) 김창식(7.22) 김태경(7.29)
마두랑가(7.11) 문용규(7.23) 정민주(7.29)

김해공장 손 탁(7.4) 전채우(7.10) 김일권(7.27)
조용환(7.8) 제도성(7.13) 이성삼(7.28)
짐 (7.9) 윤성재(7.23) 왓차뉴(7.31)

영암공장 송인환(7.5) 구마라(7.29)
차밀라(7.8) 다라카(7.30)

입사기념일

다대1공장 강민구(7.1) 마이클(7.3) 이호종(7.18)
 김수민(7.1) 이용석(7.3) 이동민(7.19)
 양혜진(7.1) 강승우(7.4) 김건웅(7.23)
 정지원(7.1) 김동길(7.7) 서재욱(7.27)
 심성섭(7.2) 최치욱(7.11)

다대2공장 최예원(7.1) 권진영(7.6) 정일수(7.30)
이경화(7.2) 김경태(7.21)
이정수(7.4) 박병규(7.29)

구평공장 반 흥(7.1) 디 키(7.3) 압 둘(7.17)
서만휘(7.1) 리스와니(7.3) 천병철(7.17)
이창복(7.1) 잠 잠(7.3) 김명운(7.21)
차동현(7.1) 후 왕(7.3) 김영자(7.21)
손홍구(7.2) 반 소(7.6) 홍딘신(7.22)
추탄리엔(7.2) 윤치호(7.9)
티타호(7.2) 박진천(7.10)

대불공장 이경식(7.3) 람(7.10) 김대근(7.30)
이광철(7.3) 고한희(7.12) 김상태(7.30)
문용규(7.5) 강태성(7.25) 이태윤(7.30)

김해공장 김성만(7.1) 윤호영(7.1) 최명철(7.1)
김일권(7.1) 이기훈(7.1) 최영철(7.1)
김형규(7.1) 이명철(7.1) 송동채(7.14)
나용태(7.1) 이의수(7.1) 김점영(7.15)
박진순(7.1) 장재선(7.1) 양성범(7.16)
손우호(7.1) 정인길(7.1) 정호경(7.20)
손 탁(7.1) 조용환(7.1)

영암공장 부티카(7.11) 경충수(7.12) 신용섭(7.18)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